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통합특별시 밑그림 그린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 구성

정은승 前 삼성전자 사장 위원장 맡아
부위원장엔 백승주 前 기재부 기초실장
7개총 20명...빛가람혁신도시에 사무실
내달 20일까지 시정 운영방향 등 제시
闊 “백년대계 설계할 최고 전문가 인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를 총괄할 인수위원회 성격의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정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성장통합, 균형발전, 시민주권 등을 반영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린 조직을 통해 통합특별시 초기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당선자는 4일 오후 광주 서구 마북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환기획위’ 구성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민 당선자는 “전남광주 통합은 압도적으로 성장해 더 크고 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라며 “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통합특별시 백년대계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4일 오후 광주 서구 마북동 선거사무소에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가장 확실하게 설계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기획위는 기획위원회, 시민주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도시공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와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은승 전 삼성전자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사장)가 맡는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 수립을 총괄하게 된다.

부위원장에는 백승주 순천대학교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백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재정·행정 전문가로 통합특별시의 조직과 행정 체계 정비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기획위원회=김영수 위원장, 이민철 위원 ▲시민주권위원회=윤남실 위원장, 문옥희·김석 위원 ▲산업경제위원회=문승일 위원

장, 김종원·임현택·정영희 위원 ▲과학기술위원회=양형정 위원장, 박윤경 위원 ▲도시공간위원회=이효원 위원장, 윤희철·조경민 위원 ▲문화관광위원회=황봉년 위원장, 김영미 위원 ▲보건복지위원회=박향 위원장, 국지운 위원 등이 참여한다.

민 당선자는 위원회 인선 기준으로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통합특별시 운영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전환기획위는 나주 빛가람공동혁신도시에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7일 첫 회의를 연다. 공식 활동 기간인 7월20일까지 통합특별시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이행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과 법령 검토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단기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종합한 시정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형배 당선자는 “법령상 위원회 체계 만으로는 통합특별시 준비 과제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행정 혁신과 재정 혁신, 해양수산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당선자는 “늘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되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姜시장·金지사 “민형배 당선자 축하”

姜 “민선 8기 성과 이어지게 정성”

金 “전남·광주 시너지 역할” 당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형배 시장님, 27명의 기초단체장, 91명의 시의원, 32명의 기초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문영 국회의원님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고 적었다.

이어 강 시장은 “우리 공직자는 민선 8기의 성과와 과제가 민선 9기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축하메시지를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과 교육감, 시장·구청장·군수, 특별시의회와 시·구·군의회 당선자를 축하하고 ‘진짜 상생,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대통합과 대부흥이라는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큰 영예이자 시대가 맡긴 특별한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신의 영광이 더없이 큰 만큼,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임 역시 무한한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역이 처한 지방소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풀기 위한 통합이 아니라 전남과 광주가 함께 시너지를 내주길, 통합의 제안자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크고 작은 갈등과 진통도 뒤따르겠지만, 눈앞의 작은 이해타산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출발의 각오로 대통합과 대부흥의 새 길을 험하게 열어달라”고 주문한 뒤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응원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차관급’ 4인 부시장...통합특별시 조직 입법예고

4실 7본부 24국 초기 필수행정 공백 해소
실·본부장 지휘 체계 일원화 업무 효율 ↑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가 4실 7본부 24국·과·담당관, 38직속기관, 1지역본부, 30사업소, 1출장소, 3합의제행정기관 체제로 꾸려진다.

광주시·전남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재난안전·복지 등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이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차관급 4명의 부시장을 둔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통합추진·자치행정·민주인권·교육청년 업무를 총괄한다.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복지·교통·도시·통합공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전담한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문화·체육·관광 기능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농수산·환경산업 분야를 각각 나눠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본부장 지휘 체계도 일원화한다.

기존 양 시·도가 각각 운영하던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경제, 자치행정, 문화, 보건복지, 농수산 등의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이 총괄·조정한다. 지원 기능은 통합을 원칙으로 정비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감점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의 기구 설치 및 정원 운용 지침도 반영했다. 제정안에는 ▲1·2급 등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4년 한시 설치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통합(1본부장, 2부분부장) 등 체계적인 조직 정비 내용을 포함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꾸려지는 첫 조직과 정원은 출범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기구 운영 체계를 갖춘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 시정 비전, 시민 및 의회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광주시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시·도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 후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7월1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시방위도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순해보험협회